‘인간’의 단위, 四位一體(?)

(이사야 64:1~12)

1.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 불이 섶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인간’의 단위, 四位一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인간’의 단위, 四位一體(?)

삼위일체(三位一體)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키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살펴보면서 사위일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한 번쯤 등장했을 수도 있을만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위에 대해 생각해볼 때 가장 친숙한 것은 아마 미터일 것입니다. 1m라는 단위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막대를 두고 미터라는 단위를 정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미터라는 단위는 측정결과가 아닌 임의로 정한 약속의 결과입니다.

1793년에 과학자들이 프랑스에 모여서 새로운 단위들에 대한 정의를 두고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 미터도 정해지게 되었는데 북극에서부터 프랑스 파리를 지나서 적도에 이르는 길이의 천만분의 일, 혹은 북극에서 남극을 가로지르는 자오선(子午線)의 사천만 분의 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1799년 백금 표준원기로 1m 길이를 제시하다가 이것도 마땅치 않아서 절대적 수치를 찾게 됩니다.

결국 우주상수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우주와 연관된 변하지 않는 숫자가 있는데 빛이 1초에 30만km를 가는 것입니다. 진공 속에서 1/299792458초 동안 진행한 거리를 1m로 정한 것입니다. 애초에 1초라는 개념도 하루의 1/86400이라는 개념으로 정했다가 윤달이나 윤년으로 인해 부정확했기에 절대영도에서 세슘 원자에 주파수를 가했을 때의 진동수로 정했다고 합니

다. 1/91억 9263만 1770초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단위가 일정치 않거나 변화하면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999년에 화성의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나사에서 기후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그런데 무려 1억 2500만 달러나 하는 이 위성은 화성의 궤도에 도착하자마자 폭발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보니 단위에 대한 착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터 대신 야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야드를 이용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탐사선을 조종하던 팀은 모든 수치를 미터로 계산했던 것입니다. 부정확한 수치로 움직이던 탐사선은 결국 궤도를 이탈하여 화성의 대기권에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의 흘러가는 맥락을 보면 복음의 정의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구원하여서 비로소 인간이 되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인간이냐는 정의가 확실해야만 합니다.
1m가 빛이 진공 속에서 약 3억 분의 1초 동안 진행한 거리이고, 1초는 세슘 원자가 절대 영도에서 91억 진동하는 주기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구원을 통해 인간이 되는 것이라면 대체 인간이란 무엇인지 기준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인간의 단위는 사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된 상태입니다. 독립된 인격을 가진 인간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는 것을 사위일체라고 불러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하나님이 일체이신 것 같이 하나님과 일체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 나의 인격을 고려하여 사위가 있는 것이고 일체된 상태라고 정의해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모였다면 두 사위일체가 진행되고 있는 단위로서 두 사람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이지만 무척 합당하기도 합니다. 왜 이러한 개념이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는지 다소 의문스럽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에 두고 오늘 이사야서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4절, 5~7절, 8~12절까지입니다. 이 세 단락의 내용은 모두 폐기처분의 대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한 간구입니다.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제 보았던 에돔의 진멸에 대한 예언을 다시 연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의 진멸에 대한 예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인간론이기도 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에 정해놓으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견

잔인해 보이던 살육의 예언이 뜻하는 것은 단순히 에돔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라는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을 하나님은 더는 인간으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인간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22~23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되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왜 사위일체에 대한 언급이 신학이나 교회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는지 참 이상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바로 앞장에서도 이러한 개념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63장의 9절을 보면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드시고 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하시면서 선민이 하나님께 반역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에 대해 이토록 명확하게 언급하는 구절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사야는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도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성령의 존재를 언급하며 삼위일체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방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민을 드시고 안으신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또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사야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을 드시고 안으셨다면 선민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사위일체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예언을 통해 이러한 개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나타났던 에돔의 진멸 예언은 참으로 귀중합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63장의 3절을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라고 하였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시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라고 하였습니다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 함께하거나 거들 수 있다는 것일까요?

또한 5절에서도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진멸하는데 아무도 돕거나 붙드는 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대체 누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에돔의 진멸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불량인간을 폐기처분하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만민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기준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견 참혹해 보이는 불량인간의 폐기처분의 과정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멸하심에 마땅히 동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삶을 사는 인간은 더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인간 아닌 자들이 인간인 척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인간론이 있습니다. 다윈은 원숭이가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인간론을 주장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인간론은 인간의 정신이 물질 아래에 있다는 유물론이었습니다. 프로이드의 인간론은 인간이 성의 노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서양철학이나 동양철학에서 규정하는 인간론이 있고,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정의합니다. 나라마다 인간을 규정하는 헌법의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민족마다 다양한 관습과 문화로 인간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인본주의가 득세하여 인간을 규정해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창조주로써 가지고 계신 인간에 대한 이해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하트마 간디는 대부분의 사람이 인정하는 위인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간 중에서는 누가 감히 간디를 향해 불량인간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본래 의도하신 인간의 모습에 미치지 못한 존재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범죄자나 되어야 불량인간 취급을 하지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재벌이나 석학이나 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못한 자라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불량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사임당은 어머니 중에 최고의 어머니로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예수님이 전파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판단을 하실지 명백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에 동조하는 자들이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누구도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다 인간인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간은 하나도 없고 인간인 척 살아가는 자들뿐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이 가지신 인간의 개념에 동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 이사야는 선민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내산 사건을 떠올립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고 하였고, 18절에서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것들에 신경 쓸 여유는 없습니다. 오직 강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위일체의 관계를 맺고 불량인간 폐기처분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와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사야는 시내산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5~9절까지를 보면 죄악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죄악은 히브리어 아원(עָוֹן)으로써 '비틀다, 구부리다'라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가장 가까운 분이십니다. 지금도 나의 머리털 까지 세신바 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을 마음에 담기 위해서는 마음은 비틀어지고 구부러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죄악으로 번역된 아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대신 마음에 서로를 담은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기쁨을 채굴하려 하지만 참 기쁨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에 불평과 원망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의 모습이 아닌 마음이 뒤틀린 모습입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구부러져야만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피해서 배우자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라면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담기 위하여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나면 이번에는 자녀를 담습니다. 그러나 자녀도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기에 사업을 담고 취미나 오락을 담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를 담기도 하고 애인이나 건강이나 외모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을 문제시하는 이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기에 사람의 가능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집중이 어려운 이유는 세상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대통령이라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아닌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해야 합니다. 마음에 나라를 담는다면 대통령일수는 있어도 인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실제 상황에 말씀을 맞춰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이해되어야만 하고 실제 삶에 적용할 때에 변화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사로잡힌 마음에 설교나 성경 말씀을 맞추는 식이 되어버리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는 커녕 세상과 똑같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삶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술을 할 때에 살을 도려내듯 인정사정없이 말씀의 논리를 삶에 적용시켜야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않는 한 대통령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도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마음에 세상을 담은 동안에는 결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본문 마지막 단락 8~12절을 보면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 될 시온의 성전복구를 바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마음에 세상을 담아서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상번제의 어린 양과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상번제가 드려지는 시온이 황폐화 되었기에 시온의 성전복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부르짖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해야만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시온의 회복을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생활화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보면 마음에 세상이 담기게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싫어하는 원수를 담든 좋아하는 애인을 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인간이 아니게 된 상태입니다. 여행을 해도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게임을 해도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시온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 세상을 마음에 담고 인간이 아니게 되어버린 나를 죽은 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을 마음에 담는 것을 1초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담았다고 느끼는 순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버림을 통해서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집중함으로써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되고 사위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간이라는 단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함으로써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대한 죽음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만 사위일체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지으셨습니다. 신앙을 대충 가질 때에 삶은 어려워지고, 신앙이 철저할 때에 삶은 거저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이 될 때에 삶은 거저 살아지기 마련입니다.
대충 예수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을 달라고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제대로 가질 때에 삶은 거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사야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을 우회하여 세상을 담은 비틀어진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